

# 도립미술관, 창의 복합문화예술공간 탈바꿈

생태·가족·놀이·예술 주제 야외정원·외관 새 단장... 시설 순차적 구조 변경 추진

전북도립미술관이 창의적 복합예술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최근 야외정원 및 건물 외관을 생태·가족·놀이·예술을 주제로 새 단장하고 도민에게 개방했다.

또한, 전면적인 건물 구조 변경도 추진해 관람 편의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도립미술관은 모악산을 뒷배경으로 전망에 구이 호수가 펼쳐져 있는 천혜의 경관을 지니고 있어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미술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외적 환경을 자랑한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도립미술관 2층 입구까지의 높은 계단과 앞마당 가로수를 제거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야외 광장 쪽으로 이동해 넓은 시야를 확보했다.

잔디밭을 깔고, 낮은 높이의 가로등을 설치해 수려한 전망과 함께 시각적으로 매력 넘치는 야외정원 공간으로 변모했다.

도립미술관 야외 공간을 업그레이드해 건물 외부 경관이 주요 관람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명소화하고, 다채로운 교육 및 복합문화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야외정원에 새롭게 자리 잡은 '벨프 라운지'는 놀이 조각 공원을 찾은 아이들의 부모님과 자녀 주민들에게 새로운 쉼터 공간을 제공한다.

향후 놀이 조각 공원에는 야외조각과 설치조형물을 따라가며 감상할 수 있는 'XR 미술산책' 등 새로운 형태의 미술체험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립미술관은 'JMA예술정원 프로젝트'도 준비했다.

이는 미술관 야외 광장에서 펼쳐지는 비정기 야외 전시 기획물이다.

첫해인 올해는 '감각의 뜰'을 기획했다.



전북도립미술관 야외정원과 건물 외관 리모델링 경관.

미술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내·외부 환경을 대상으로 미술관의 안과 밖을 지각하고, 다채로운 감각을 끄집어내고자 시도한 야외조각 전시다.

참여미술가는 이수경, 유혜숙, 크리스토프 쿠쟁(Christophe Cuzin), 엘로디 부트리(Elodie Boutry), 실비 루아울스(Sylvie Ruaux) 국내·외 5명이며, 전시개막은 오는 6월 3일(금)이다.

도립미술관은 '건물 새 단장'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2월 기본 구상용역도 마쳤다.

1층 로비 건물 외부 우측에 카페테리아 1개 층을 증축하고,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관람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2층은 특수기획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할 '개방형 전시 공간'을 마련하며, 1층 강당은 전면이 창을 내어 야외 풍경을 안으로 품을 수 있게 고안한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는 현대적 시민 창조공간을 지칭하는 '아트 캠퍼(사전5)', 소규모 미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빙월과 벤치로 구성된 '오리엔테이션실', 그리고 접견실, 라운지 등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건물 뒤편 주차장에는 반투명한 소재와 빛이 어우러져, 주·야간을 다른 분위기로 연출하는 북측구조의 전시 공간인 '특별전시실'을 증축한다.

김은영 전북도립미술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도록 야외정원 및 외관을 새 단장하고, 미술관을 창의적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향후 순차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락한 환경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자원활동가 '산골친구' 모집

관객 서비스·상영관 운영·게스트 서비스·관객 이벤트 등 4개 분야

초여름, 무주의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여유로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2022. 6.2.~6.6.)가 열정 가득한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한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4월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해 영화제와 함께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한다. 무주산골영화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기며 자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별한 매력 때문에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산골친구는, 올해도 영화제 기간 동안 현장 곳곳에서 관객들의 다정한 영화 소풍 친구로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관객 서비스를 비롯 상영관 운영, 게스트 서비스, 관객 이벤트까지 총 4개 분야로, 영화제 전 기간 동안 활동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지원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mjff.or.kr)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추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5월 13일 최



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하게 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에게는 활동 기간 내 숙식 제공과 영화제 공식 유니폼 및 기념품, 활동 종료 후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지원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산골친구 담당자(전화 063-245-6400/이메일 mjffapply@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춘향제 한복체험단 모집

제92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춘향제 기간 한복을 입고 광한투를 거닐며 관광객을 안내할 '한복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92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축제인 춘향제는 그간 보이지 않는 영웅(unsung hero)으로 불려야 마땅했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들을 한복체험단으로 확대 모집, 춘향제 기간 광한투원 주변 곳곳에서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한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2만원 상당의 체험 쿠폰과 함께 한복을 입은 모습을 SNS에 인증할 시 1만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



권도 추가 제공해 광한투원 주변을 한복 열기로 뒤덮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백제왕궁서 즐기는 여름밤 '익산 문화재야행' 개최

8월 12~14일 백제왕궁·탑리마을 일원에서 개최

백제왕궁에서 즐기는 한 여름밤의 축제 '익산 문화재야행(夜行)'이 오는 8월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 및 탑리마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익산 문화재야행을 위탁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문화재 야행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재 야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추진위원이



참여해 익산 문화재 야행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문화재 야행의 정체성 및 문화

재 활용 프로그램 강화, 방문객들의 체험, 전시, 판매로 만족도 향상, 주차난 해소, 관내 타 관광지와의 연계, 행사장 환경 보전 등 성공적인 야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문화예술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도 성공적인 익산 문화재 야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왕궁(익산 왕궁리유적)에서 개최되는 익산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 공모 심사를 거쳐 올해로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지난 2019년 연구진 모니터링, 행정 평가 등의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전국 27개 야행 중 문화재청 지정 우수 야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부안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 좌담회 개최

부안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안생활문화센터'를 부안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 플랫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 좌담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는 재단에 위수탁 된 부안 생활문화센터를 건립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 부안군청 문화관광과장, 인접 생활문화센터 전문가, 지역 주민, 부안군 생활문화동호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단 노사용 사무국장의 생활문화센터 운영개념 및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제시와 함께 바람직한 생활문화센터 기능 및 주민이 참여하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주민 좌담회를 통해 지역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